

전북도립국악원, 송년국악큰잔치 '국악이, 국악을'

'우리의 전통 소리로 한해를 마무리하다'

▶ 15일 오후 7시 소리문화전당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광숙기)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년국악큰잔치 '국악이, 국악을' 공연으로 올해를 갈무리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원이 자랑하는 주옥같은 레퍼토리 중에서도 올해 한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프로그램들로 전개된다. 관현악단은 안태상 작곡의 '새로운 노래를 꿈꾸며'와 태평소협주곡 '겨울바람'을 선보인다.

새로운 노래를 꿈꾸며는 2016년 관현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에서 위촉초연된 곡으로 원제목은 '천년지약'이다. 이번 무대에선 기존 작품을 재구성해 '새로운 노래를 펴다'로 연주한다. 곡에는 가는 해는 뜻 깊게 보내고 오는 해는 더욱 희망적인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겨울바람은 2016년 관현악단 신춘음악회에서 '봄의 향연'으로 위촉초연된 작품을 재구성하였다. 곡은 잔잔한 앞부분의 연주가 끝나면 태평소의 울음이 이어진다. 이는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겨울바람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 바람에 맞서는 사람들의 강인한 모습을 투영한다. 곡은 매서운 바람 뒤에 어긋없이 찾아오는 봄의 생기와 따뜻한,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치까지를 죄다 담아낸다.

무용단은 '삼고무'와 '단야'로 무대에 오른다.

삼고무는 인간내면의 세계를 북소리와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 작품으로 땅의 소리인 '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묘사하여 에너지 넘치는 기운을 전해준다. 3개로 구성된 '북'은 굵거위·자진모리·당악의 장단을 날렵하게 휘둘러치며,



을 한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들로 전개 관현악단, 태평소협주곡 '겨울바람' 등 선보여 무용단, '삼고무'·'단야'로 무대에 올라 창극단, 희극적인 민요 '진도방아타령' 들려줘

잔가락의 다양함을 요하는 고도의 춤사위는 영혼마저 뒤엎어 버릴 듯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단야는 김제벽골제에 전해오는 단야 남자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단야의 희생과 사랑을 기린다. 단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벽골제의 평화축하무를 신년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재구성했다.

창극단은 '진도방아타령'을 들려준다. 이 민요는 삶 속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사소한 일상을 소재로 남녀 간의 사랑을 희극적으로 노래한 곡이다.

공연의 대미는 관현악단·창극단·무용단이 연합으로 펼치는 '30h 국악이, 국악을'으로 장식한다. 이는 도민들과 함께 해온 지난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300년을 도모할 뜻 깊은 향연의 무대로 꾸며진다. 전통의 품사는 소리와 신명난 몸짓, 그리고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예약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는 063-290-6840. /정해은 기자

14일 호남오페라단 송년음악회

(사)호남오페라단(이사장 김임)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송년음악회를 마련한다.

오페라단은 매년 12월에 해오던 '송년 디너 콘서트'를 금년에는 음악애호가들이 더 많이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연다.

이날 공연에는 호남오페라단 주역 가수들로 구성된 휘토스 챔버 심어즈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김준 교수·첼리스트 전경원 교수·소프라노 조현애 교수 등이 무대에 올라 고귀한 음악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티켓은 VIP석은 5만원, R석은 3만원, S석은 1만원.

*문의 063-288-6807. /정해은 기자



바늘과 실로 정성스럽게

전통문화전당 '전통자수, 맥을 잇다' 내일부터 6일간 전당 3층서 열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은 우리나라 전통자수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통자수, 맥을 잇다'전을 개최한다.

오는 13~18일 전당 3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전북무형문화재 자수장 고(故)강소애 이수자인 전경례 작가와 그의 제자들이 전통자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전통자수는 공단·명주·비단 소재에 3m정도의 바늘과 혼사·반분사·금은사 실로 정성스레 수놓아진 작품은 섬세함·화려함·우아함이 일품이어서 표구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수놓는 문양이나 소재는 자연·식물·동물 등 작품에 따라 다양하다. 동양화적인 사실표현을 위주로 한 작품은 장식용에 많이 활용되며, 간단한 생활용품에 놓는 자수는 섬세한 여성적인 문양을 주로 담는다. 이번 전시에서 주머니와 베개에 옛 우리네 어머니들이 한 뼘 한 뼘 실로 놓아주신 동양화를 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무주 문화가족의 날·Happy 365 행사 성료

제28회 무주 문화가족의 날 & Happy 365 문화행사가 지난 9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16년 문화교실 활동을 결산하며 서로의 작품과 공연을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념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철 의장, 백경태 도의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회장과 전북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 무주문화원 김내생 원장을 비롯한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문화원 문화교실 수료증 수여와 함께 무주문화원 매킨지 부원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문화원 이문승 이사가 무주군의회의장 표창을, 무주문화원 문화교실 흥한일 사자반 강사가 무주문화원이 주는 공로패를, 무주향교 박찬걸 전교와 무주군청 김윤섭 문화예술팀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황 군수는 "로비 가득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또 행사장 안을 꼭 채운 공연 열기를 체감하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나눔에 대한 온정으로 뜻깊게 보내신 여러분 덕분에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어울리며 한 번 더 감동을 받았던 만큼 여러분의 활동을 뒷받침해 나가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예체문화관 로비에는 오전 10시부터 캘리그래피와 수채화, 목공예, 흙패션, 사진 등 9개 분야의 작품들과 만나볼 수 있었으며, 오후 5시 30분부터는 우크렐레 교실과 색소폰, 할머니 하모니(어르신 우크렐레), 가락장구, 기타, 키즈벨리 교실 수강생들의 공연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다.

이어 7시 30분부터 진행된 Happy 365 문화행사에서는 그림자 음악극이 무대에 올려져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자 음악극 '모차르트의 미술퍼리'는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를 그림자와 함께 연출한 것으로, 오페라를 그림자와 빛으로 만나는 기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동화, 창조적인 색채의 향연이었다는 반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성 기자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가위의 모든 것 '한눈에'

세계 유일 가위 테마로 한진안군 가위박물관 개관 희귀 가위 1561점 전시



세계 유일 가위를 테마로 한 진안군 가위박물관이 지난 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진안군 가위박물관은 2015년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완공 되어 가위라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계 희귀 박물관으로, 한국과 동양·서양을 망라한 다양한 형태의 세계 희귀 가위 1,561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가위박물관 전시실은 크게 1층과 2층으로 구분된다.

1층 전시실은 크게 가위의 역사, 가위와 인물, 세계의 가위 등 세 공간으로 나뉘를 수 있다.

가위의 역사 코너에서는 수천리 출토 철제가위 5점과, 중세시대가위, 동양의 가위,

양털가위 등 64점의 가위유물을 전시한다. 가위와 인물 코너에서는 울가가위, 한나가위, 조지4세가 소장 했던 가위 등 인물과 관련 깊은 26점의 가위유물을 전시한다.

세계의 가위 코너에서는 황새가위 15점, 포도가위 30점을 비롯하여 아편 가위 6점,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슬람 캘리그래피 가위 11점 외 빅토리아 엔틱가위, 아전가위 등을 포함하여 416점의 가위가 전시되어 있다.

2층 전시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가위를 주제로 전시되어 있다. 주방가위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미지

가위, 미술공예시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예가위, 꽃·나무를 다룰 때 필요한 전지가위, 일반가위의 단점을 보완한 전동가위, 초심자를 자르는 초심지가위, 소중한 가위를 보관하는 가위집 및 가위관련, 액자, 시계, 액세서리 등 386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가위와 종이로 만든 겨울왕국, 배트맨, 헬기 등 만화 캐릭터를 묘사한 페이퍼아트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의 형상은 가위를 발린 형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용담면 수천리 용담댐 수물지역에서는 교리시대를 대표하는 가위가 출토된 바 있어 가위박물관이 진안에서 개관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진안군은 관람료를 성인 4,000원(단체 20명 이상 3,000원,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3,000원(단체 2,000원) 어린이 2,000원(단체 1,500원)을 받으며, 신분증을 소지한 진안군민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12일>

▶ 쥐띠 48년생: 기회가 왔을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하라. 60년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기니 혼자 고민하지 마라. 72년생: 화합에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84년생: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으나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된다.

▶ 소띠 4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결손함과 더불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그동안 했던 언행에 대해 구설이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 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협동해야 가능하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복병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생긴다.

▶ 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나 나중에는 편안해지니 마음을 안정시켜라. 63년생: 베푸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윗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 것.

▶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 64년생: 문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는 필수.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상대도 나와 같이 자중하라.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

▶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웃을 일과 언쟁은 일이 같이 있겠다.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ச்ச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라오는 회기를 가리안하라,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막히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 양띠 55년생: 문서에 길함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적을 만들지 마라.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소화가 계통이 약해지는 운이다.

▶ 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자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않는다면 중궁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 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생각 없이 한 언행으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하라.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득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야 할 때.

▶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